

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1,760천 km ²	G D P	686억 달러 (2013년)
인구	6.3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10,933달러 (2013년)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Libyan Dinar (L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1.26 (2013년 평균)

-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리비아는 한반도의 8배 규모의 국토와 약 6.3백만 명(2013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집트, 수단, 차드, 니제르, 알제리, 튀니지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민은 총 500여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대 부족인 와르팔라, 주와야, 카다파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196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Gaddafi 국가원수는 집권 후 ‘이슬람-사회주의’의 슬로건 하에 1인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2011년 초 민주화 시위에 이은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축출되었음.
- 2012년 9월 2기 임시내각 출범으로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로부터의 공식적인 권력이양은 종료되었으나, 의회 내의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세력간 충돌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 지속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금년 6월 총선에 의해 출범한 새 의회와 향후 구성될 새 정부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내전 종식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최대 1,700개의 민병대 조직이 정부의 통제 밖에서 실질적으로 군과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로 갈라져 서로 무력충돌을 벌이는 등 치안 공권력의 회복이 지연되어 무정부 상태의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치안 악화에 따른 원유생산량의 감소 및 투자환경 악화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속 전망

- 2013년 리비아 경제는 치안 불안의 심화와 정치 혼란의 지속으로 인한 원유생산량 감소, 투자환경 악화, 소비심리 위축에 국제유가 하락까지 더해져 경제성장이 3.0%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 2014년에도 전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5.2%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치안 악화로 인한 인프라 건설 투자 감소와 비석유 부문의 침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는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는 내전과 치안 불안에 따른 원유수출 감소로 적자 전환

- Gaddafi 정권 붕괴 후 과도정부는 민심 수습을 위해 보조금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 확대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하였음. 그러나 민병대 간의 충돌로 심화된 치안 불안의 여파로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013년 -4.1%를 기록하였음.
- 이에 과도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공공 부문 임금을 20%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치안 악화에 따른 원유생산량 및 원유수출 수입 감소 추세의 지속, 경제활동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9.1%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증대로 안정세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에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증가로 전년 대비 3.5% 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도 역시 보조금 정책의 유지와 식료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과 비슷한 2.8%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4.3	-61.4	92.1	-3.0	-5.2
재정수지 / GDP	8.0	-16.6	32.0	-4.1	-9.1
소비자물가상승률	2.5	15.9	6.1	2.6	2.8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석유 부문이 GDP의 60%, 총수출의 95%, 재정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등 경제구조가 석유 부문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및 석유 생산량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도정부는 비석유 부문 투자를 통하여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조업과 관광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내전과 그에 따른 사회 혼란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와 내전 발생 등으로 인한 인프라 시설 부족

- 1986년 이후 약 20년에 걸쳐 지속된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로 원자재 수입 등에 제약을 받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2011년 2월부터 발생한 내전 당시 폭격 등으로 주택, 항구, 도로 등이 파괴되어 인프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

- 과도정부는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세우고 공항,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병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등 사회 혼란으로 개발계획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음.

□ 고질적인 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수로 건설 추진

- 사하라 사막의 일부인 리비아 사막이 전 국토에 걸쳐 있어 고질적인 용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남부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하루 650만 t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수로 건설을 진행 중이나, 치안 악화로 차질을 빚고 있음.

□ 치안 불안과 제도 미비로 기업투자 환경은 극히 불안정

- 내전 종식 이후 여전히 불안한 치안, 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미비, 동부 지역의 자치정부 수립 선언에 이어 민병대 간의 충돌로 인해 다 시금 내전 수준으로까지 비화된 정치적 혼란 등으로 리비아의 투자환경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각국은 최근 공관 폐쇄, 자국민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는 물론 기존의 외국인투자자들의 복귀도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치안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 리비아의 2013년 말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은 485억 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2.9%)로 아프리카 대륙 1위, 세계 9위 규모임. 국토의 절반 이상이 미탐사 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리비아의 2013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5조 m³ (전 세계 매장량의 0.8%)로 아프리카 대륙 4위, 세계 19위 수준이며, 미확인 매장량은 확인매장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원유와 마찬가지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서부 리비아 가스 프로젝트(WLGP)의 완공으로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3년 81억 m³ 에서 2013년에는 120억 m³ 수준으로 증대되었음.

□ 치안 불안으로 인해 원유생산량은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상태

-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10년 평균 165.8만 배럴에서 2011년에는 내전으로 인해 평균 47.9만 배럴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에는 내전 종식에 따라 평균 150.9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그러나 2013년 들어 국영석유회사의 원유 생산기지 노동자들과 원유 수출항 노동자들, 원유 수출 터미널 보안요원들이 구조조정 중단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동부의 연방주의 군사조직인 석유생산설비수비대(PFG)가 4개 석유수출항을 봉쇄하였음.
- 이로 인해 일일 평균 생산량은 10월 초에는 내전 중이던 2011년 수준(48만 배럴)보다도 적은 10만 배럴로까지 급감하여(연말에는 약 26만 배럴), 2013년 평균은 2012년 평균(151만 배럴)에 크게 미달하는 99만 배럴에 그쳤음.
- 이후 2014년 1월 52만 배럴로 증가하였으나, Zawiya 정유소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무장세력이 차단함에 따라 4월 말에는 약 31만 배럴로 위축되었음.
- 한편, PFG와 과도정부 간에 두 차례의 협상을 통해 4월 초와 7월 초 석유수출항 봉쇄가 완전 해제되어 일일 평균 생산량은 7월 초순 60만 배럴까지 회복되었으나, Tripoli 공항의 장악을 목표로 7월 13일 발발한 민병대 간의 무력 충돌의 여파로 7월 말 45만 배럴로 감소하였음.

□ 서비스업, 건설업 등 신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노력의 성과 미미

- 과도정부는 2001~10년 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의 집중 육성을 추진해 왔으나, 치안 불안의 악화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임.

- 한편, 과도정부는 석유수출 수입(收入) 증가를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 투자를 추진하였으며, 석유 부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됨에 따라 건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치안 불안의 심화로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에 전면 제동이 걸린 상태임.

다. 정책성과

□ 내전 이후 석유생산시설 및 인프라 재건 사업 추진

- Gaddafi 정권 붕괴 이후 경제정책은 생활수준 개선을 요구하는 대중적 기대에 맞춰 공공부문 투자 증대, 인프라 재건, 고용 창출에 집중되었음. 특히 내전으로 손상된 석유/천연가스 플랜트 및 정유시설 등의 복구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었음.
-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는 2011년에 향후 5년 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인프라 분야 1,200억 달러, 각종 상품 수입 관련 분야 1,500억 달러, 방위산업 분야 300억 달러 등이었음. 그러나 치안 악화로 동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다각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

- 과도정부는 산업 다각화,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개발 등을 목표로 비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에너지 부문 인프라 구축에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산업 다각화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Gaddafi 정권 치하에서부터 국영농장 설립 등을 통해 추진하던 자급 자족형 농업 체제 구축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여전히 식료품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부문 축소 정책도 석유 및 가스 분야, 통신, 인프라 개발, 호텔, 미디어, 소비재 유통에 큰 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3. 대외거래

□ 치안 악화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로 2013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

- 2013년에는 치안 악화에 따른 원유생산량 감소, 민병대의 석유수출항 봉쇄로 인한 석유수출 급감,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77%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전년도의 34.0%에서 -4.4%로 마이너스 전환되었음.
- 2014년에는 치안이 더욱 악화되면서 원유생산량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8.9%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단기외채잔액비중 등 외채관련 지표와 D.S.R은 양호한 수준

- 외환보유액은 치안 불안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석유수출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2013년 말 전년 대비 2.8% 감소(1,122.4억 달러)하였음. 2014년에도 동일한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연말 기준 1,03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말 2.2%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D.S.R은 2013년 말 2.9%에서 2014년 말 4.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16,801	3,192	23,836	-2,998	-5,639
경 상 수 지 / G D P	24.4	9.9	34.0	-4.4	-8.9
상 품 수 지	24,376	7,860	35,436	8,118	3,032
수 출	48,935	19,060	61,026	34,909	20,446
수 입	24,559	11,200	25,590	26,792	17,415
외 환 보 유 액	96,800	101,872	115,473	112,243	103,861
총 외 채 잔 액	7,748	6,255	6,651	7,692	7,979
총 외 채 잔 액 / G D P	11.3	19.3	9.5	11.2	12.4
D S R	3.1	8.3	2.1	2.9	4.0

자료: IMF,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립으로 과도정부 내의 교착 상태 심화

- 2012년 7월 7일 Gaddafi 축출 후 최초로 실시된 제헌의회 총선을 통해 기존의 국가과도위원회(NTC)에서 국민회의(GNC)로 권력 이양이 진행되었음. GNC에서는 세속주의 계열인 국민연합(NFA)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정의건설당(JCP)이 제2당을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우세를 차지하였음.
- 2012년 10월 GNC는 Mustafa Abu Shagur 총리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에 대해 모든 종파/부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거부하고 Mustafa 총리를 선출 25일 만에 해임하였음. 뒤이어 NFA 소속 Ali Zeidan 총리의 2기 임시내각이 출범하였으나, 과도정부를 구성한 NFA와 JCP가 각각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여 교착상태가 심화되었음.

□ 2014년 들어 총리의 잦은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악화

- 2014년 3월 11일 GNC는 동부 군사조직 PFG가 장악한 Sidra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북한 유조선이 리비아 영해를 탈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과도정부에 물어, 불신임 투표를 거쳐 Ali Zeidan 총리를 해임하고 Abdullah al-Thani 국방장관이 신임 총리로 취임하였음.
- 그러나 4월 13일 al-Thani 총리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고 전격 사임함에 따라 5월 4일 GNC는 사업가 출신의 Ahmed Maitiq를 총리로 임명하였음.
- 5월 25일 GNC는 이슬람계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Maitiq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구성안을 통과시켰으나, 6월 9일 리비아 대법원은 Maitiq 총리 임명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음. 이에 GNC는 al-Thani 前총리가 계속 과도정부 수반이라고 공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음.

□ 6월 총선 결과 세속주의 세력이 새 의회에서 우세 점유

- 새 의회의 구성을 위한 총선이 정당간 갈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2013년 10월에서 8개월 연기된 지난 6월 25일 치러졌으나, 총 150만 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47%인 63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저조한 투표율로 종료되었음.
- 7월 22일 발표된 총선 결과 (총 200석 중 188석 확정) 세속주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으며, 이슬람주의 후보들은 30석 안팎을 얻는 데 그쳤음.

□ 동부 4개 지역이 연합하여 자치정부 수립 선포

- 2013년 10월 24일 동부 지역의 8개 주요 부족이 연합하여 Benghazi, Tobruk, Ajdabiya, Jebel Akhdar 등 4개 지역을 관할하는 Barqa(리비아 동부를 지칭하는 이름) 자치정부의 수립을 공식 선포하였음.
 - 앞서 2012년 3월 동부 지역의 주요 부족 지도자들과 군사령관들이 Barqa 지역의 자치를 선언하고 독립된 예산과 의회, 사법부, 경찰권을 갖되 외교, 군사, 석유자원 관리 기능은 중앙정부에 맡기는 연방제 수립을 요구해 왔음.
 - 리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북서부의 Tripolitania, 남서부의 Fezzan, 동부의 Cyrenaica(Barqa)가 연합하여 탄생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자치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특히 Barqa 지역은 Gaddafi 집권 당시 서부 지역의 개발 집중으로 수십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음.
- Barqa 지역은 리비아의 주요 석유 생산지로, 석유 관리권이 중앙정부에 남더라도 동 지역의 분리 움직임은 리비아의 앞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리비아 정부는 Barqa 자치정부 수립을 반역으로 규정하였으나, Barqa 자치정부측이 독자적인 군대를 갖추고 현지를 장악한 데다 현지 주민들도 대부분 독립을 원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민병대 간의 세력 다툼으로 치안 공백과 사회 불안 악화

- 내전 종식 이후 해체된 군경 조직의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민병대 조직에 국방과 치안을 위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병대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충돌 격화로 인해 치안 공백과 사회 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Gaddafi 정부군에 맞서 싸운 전국의 민병대들(전국적으로 1,700여개 존재 추정)은 조직의 이권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과도정부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여전히 무력을 행사하고 있음.

□ 리비아 국민군(LNA)과 이슬람주의 민병대 간의 대결 구도 형성

- Gaddafi 치하에서 육군 장성으로 복무한 바 있으며 Gaddafi 축출에 기여한 반군 지도자 Khalifa Haftar가 이끄는 무장단체 리비아 국민군(LNA)은 이슬람주의 세력이 장악한 GNC의 해산을 요구하며 5월 18일 수도 Tripoli의 국회의사당을 급습해 일부 의원들과 정부 인사를 억류하고 GNC의 권한 행사 중단을 선포한 바 있음.
- 5월 20일 과도정부의 유일한 정규군인 Bengazhi 주재 특수부대 사령관이 LNA와 함께 이슬람계 무장단체 격퇴에 동참한다고 밝히는 등 LNA에 합류하는 세속주의 군사조직들도 늘어나고 있음.
- 한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인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가 근거지를 말리에서 리비아로 옮기는 등 외국 테러조직의 리비아 내 무력충돌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

□ 1년 가까이 지속된 동부 연방주의 반군의 4개 석유수출항 봉쇄 해제

- Barqa 지역의 군사조직인 석유생산설비수비대(PFG)는 2013년 7월부터 동부의 주요 석유수출항인 Zueitina, Hariga, Ras Lanuf, Sidra를 점거하고 독자적인 석유 수출을 강행하며 과도정부와 대립해 왔음.

- PFG는 본래 2012년 리비아의 석유생산 설비 경호를 위해 창설되어 과도정부와 협력하였으나, 과도정부가 석유 판매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석유판매 수입을 동부 지역에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으며 PFG 대원들의 급료를 체불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봉쇄를 단행하였음.

- 4월 6일 과도정부 관계자들과 PFG 대표가 1차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Zueitina와 Hariga의 봉쇄가 해제되었음. 이후 추가 협상으로 7월 2일 Ras Lanuf와 Sidra의 봉쇄도 해제되었음.

□ Tripoli 국제공항 장악을 위한 민병대 간의 공방전 계속

-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JCP를 중심으로 GNC를 지배해온 이슬람주의 세력이 치안과 민생의 악화로 민심을 잃어 6월 총선에서 패배하자, 이슬람주의 민병대들은 새 정부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의 일정 지분 확보를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자 7월 13일 Tripoli 국제공항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 8월 23일 공항을 장악하였음.

- Tripoli 국제공항은 Gaddafi 정권 붕괴 이후 현재까지 NFA를 지지하는 Zintan 민병대가 관할해 왔으며, 이슬람주의 민병대들을 주도하고 있는 Misurata 민병대는 무슬림형제단과 제휴하고 있음. Misurata 민병대의 대변인은 새 의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슬람주의 세력이 주도한 GNC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있음.

- 세속주의 진영이 의회와 내각에서 이슬람주의 진영에게 일정 수준의 역할을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리비아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개선이 좌우될 전망이다.

3. 국제관계

□ Gaddafi 정권 붕괴 후 서방 및 걸프 지역 국가들과 관계 개선 진행

- 2003년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선언함에 따라 UN의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등 회복되었던 서방과의 관계가 Gaddafi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 진압 및 민간인 학살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되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1년 2월 26일 대 리비아 제재안을 결의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동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였음.
- 내전 종식 이후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중이며, 내전 당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방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합류하면서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바 있으나 내전 종식 후 대사를 다시 파견하는 등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치안상황 악화로 각국 공관 폐쇄 및 자국민 소개 진행

- 현재 리비아의 치안상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각국은 리비아 주재 공관을 폐쇄하고 리비아 내의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 인력에 의지하는 리비아의 보건, 건설 부문이 위기에 처해 있음.
- 한편, 이집트의 el-Sisi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리비아 사태에 개입할 것을 역설하는 한편, 리비아의 이슬람주의 세력이 이집트를 위협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여 제한적 공습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풍부한 오일머니와 20여 년 간 지속된 경제제재(대외차입 제한 등)로 인해 외채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총외채잔액은 2014년 말 79.8억 달러로 추정되어 명목 GDP의 12.4% 수준이며, 에너지 개발 및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총외채잔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풍부하고 2014년 말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보유액의 2.2% 수준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제약조건이 있음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0. 12. 29 (북한과는 1974. 1 수교)

□ 주요 협정 : 경제과학기술협정(1999), 무역협정(2006), 투자보장협정(2006)

□ 2013년 대 리비아 교역규모는 15.4억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의 대 리비아 수출은 내전 종식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품목별로는 리비아 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이 2013년 전체 수출의 64.6%로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 2014년 1~6월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하였으나, 7월 이후 리비아의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대 리비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5.6% 감소한 약 15.4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중심으로 10.6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어육 등을 중심으로 4.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2014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50건, 3억 4,477만 달러

< 표 4 >

한 · 리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1~7	주요 품목
수 출	1,077	1,064	662	자동차 및 그 부품
수 입	752	480	288	원유, 석유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대륙 제1의 산유국인 리비아는 2013년에는 석유 부문의 파업과 치안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도 치안이 더욱 악화되어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4.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Gaddafi 퇴진 이후 국가과도위원회를 거쳐 과도정부와 국민의회가 구성되는 등 민주적 권력이양이 추진되었으나, 연립정부 내 주요 정당들의 이념적 차이로 인한 교착상태 지속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내전 종식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최대 1,700여개의 민병대 조직이 정부의 통제 밖에서 실질적으로 군과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무력충돌을 벌이는 등 무정부 상태의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현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정치적·사회적 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외부의 군사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